

제 215 호

주의 공헌 대축일

1977 1. 2.

숲 정 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35098)

□제10회 세계 평화의 날 메시지□

平和를 원한다면 生命을 옹호하라

—교할 바오로 6세

I. 서론

1. 平和를 원한다면

우리는 차라리 평화 없는 사회와 문명에 체념해버리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

전쟁·무질서·부도덕들이 많은 문제들을 부과하지만 않는다면, 무엇보다도 자기들의 이익과 안락을 해치지만 않는다면, 기꺼이 커기에 순응하여서 살아가겠다고 하고 있다

진정한 평화란(非戰爭)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가치를 추구하면서 보다 큰 정의와 안전과 유대와 참여와 창의와 우애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진정한 평화인 것이다.

2. 人間 生命을 옹호하라.

生命을 옹호한다는 것은 인간 인격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 각자와 살아있는 존재 전체의 善을 옹호하고 증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生命을 옹호하라, 生命을 치유하라, 生命을 추진하라” 이것이 바로 인류의 람된 平和를 가능케 하는 기본적인 요구조건인 것이다.

II. 人間 生命을 옹호하라.

1. 죽음을 목표로 하거나 사실상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공격들.

生命이 없는 곳에 平和란 없다. 生命은 平和와 동일한 한적들을 가지고 있다.

(1) 전 쟁

갈수록 완벽해지고 살인적인 위력을 더해가는 무기들에 의하여 상대방을 말살하고 굴복시키기를 추구하는 것이 전쟁이다.

전쟁이 죽음의 별명이라면, 生命은 平和의 별명이다.

(2) 낙 태

낙태는 찬성하면서 전쟁은 반대한다는 것은 하나의 모순이다. 전쟁과 낙태를 종류가 다른 두 가지의 문제라고 구별한다는 것은 비논리적이며 부당한 일이다.

혹은 바라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혹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로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아이들을 제거해 버리는 일에서부터 집단학살에 이르기까지 生命이 존중되고 있느냐 아니면 멸시받고 있느냐 하는 것은 모두가 매일반의 문제인 것이다.

(3) 굶 주 림

보다 잘사는 나라들은, 그리고 또한 국제적인 차원에서 특정한 요구 조건들을 주장하고 특정한 행동 노선을 따르고 있는 나라들은, 이와같은 마땅히 책임져야 할 태

만에 대하여 새로이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야 할 것이다

2. 人間 生命을 손상, 악화 또는 훼손하는 것들

인간 이하의 생활 조건, 불법감금, 유형(流刑), 노예화, 매춘, 부녀자와 청소년의 인신매매, 노동의 악조건 등 인간 존엄성을 모독하는 온갖 것들은 실로 피력치한 행위들이다.

고문, 즉 감금자들의 입술에서 자백을 짜내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경찰 수단은 공공연히 단죄되어야 할 일이다. 그것은 실사정의를 실행하고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고문은 배척되고 폐지되어야 한다

III. 生命을 치유하라.

질병과 싸우고, 수명을 연장하고, 악조건에 있는 이들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 또 무엇보다도 위생과 주택과 식량 사정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간다는 것은 확실히 하나의 안정과 平和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IV. 生命을 증진하라.

生命의 책임성있는 전달, 개인과 사회가 인간에 합당한 충족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위해 인간의 환경 관리와 잠재능력의 개발 등이 요청된다.

V. 결론—신앙의 빛

하느님으로부터 인간에게 넘겨진 生命에 대한 책임과 봉사를 위해 우리는 자기의 生命까지라도 바쳐야 한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를 가운데”(루가 17,21)있고, 아직 우리들의 시간 안에 완전히 실현되어 있지는 않다.

진정한 生命을 옹호하라. 生命의 숭한 상처를 치유하라. 고귀한 生命을 풍성케 하라. 그래서 사람이신 주님의 뜻이요 우리 모두의 소망인 平和를 영태케 하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平和이다. (에베소 2,17)

숲 정 이 산책



□신년 탐방□



친절하고 따뜻한 우리병원

전주 성모 (聖母) 병원

한국 사람들은 대개 병원을 두려워 하는 것 같다. 돈도 무섭고 모종의 신고도 무서워서 그러할 것이다. 그래서 신문이나 방송의 광고를 통해서 얻어들은 지식(?)으로 약국을 찾는다. 그래도 치료가 안되어 죽게 생기면 그때서야 병원을 찾는다.

거기에서 병원을 문 열고 들어서면 흰 까운이 무척이나 차갑게 느껴지는 그 느낌이 더욱 병원을 멀게 해주는지도 모른다.

여기, 우리의 병원, 성모병원을 지도하시는 김영일 신부님의 말씀을 옮겨 본다,
“우리 병원의 시설이나 기구가 대학병원이나 예수병원을 못따라가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친절 봉사로 그 부족을 메꾸고 있습니다. 병원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의뢰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환자위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재산이고 생명이며 전부입니다.”

인술부재(仁術不在)시대라는 오늘, 환자를 인간으로 보기 보다는 돈 버는 수단으로 본다는 오늘, 신부님과 무릎을 맞대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진다.

성모병원의 문을 밀치고 들어서면 작달막한 키에 안경을 쓰신 할아버지(?)를 만나는 경우가 많다. 항상 잠바 차림의 수더분하게 느껴지는 뚱뚱한 할아버지가 바로 성모병원을 지도하시는 김영일 신부님이시다. 어떤 때는 환자들이 대기하는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환자들을 진료실로 안내하기도 하신다.

그간 지도신부님의 업무가 병원만의 전담이 아니었다가 이제는 김신부님이 전담하시기에 그간 성모병원의 인상은 많이 바뀌었다. 김신부님은 이제 환자들과의 대화, 상담, 나아가서 신자들에게는 봉성체(奉聖體-성체를 모셔줌)를 해주시며, 의사나 간호원, 서무직원들과의 잦은 회합을 토대로 병원의 체질개선을 위해 항상 뛰고 계신다.

신병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정신적인 안정과 위로라고 할때 신부님의 활동은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신부님 나이에 비해 업무가 과중하지 않으시냐는 본기자의 질문에 신부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하신다.

“조금 뛰어 보았더니 환자들이 이제 우리 병원에서 포근한 느낌을 받는데요. 피로가 싹 풀리는 반응이죠. 제발 우리 신자들이 많이 찾아주었으면 해요. 그래도 시골에서는 많이 오는데 전주 시내에서 외면하는 것 같아요. 성실하고 친절하게 봉사하겠어요. 많이 오세요. 그리고 신자들의 경우라면 본당 신부님의 추천만 얻어오면 20% 할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1. 연 령

1949년, 제 3대 교구장이시던 김철배 주교께서 생활이 어려워 병원을 못찾는 불우한 형제들과 성직자 수도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소 형식으로 문을 열었다.

64년에 병원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65년 말에는 병원 개설 허가를 얻었다.

2. 규모 및 시설

□ 개설 과목 및 의료진

내과 전문의...염광섭* 박사(원장겸 내과과장)

외과 전문의...장양욱 선생(외과과장)

소아과 전문의...윤영덕 선생(소아과과장)

응급실 담당...윤강희 선생

담당 의사들은 매일 7회 정도의 회진으로 환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

□ 특수 검사 및 시설

심장 전문 검사, 위경 검사, 간 기능 검사, 제반 X선 정밀 검사(위투시, 장투시, 담낭 촬영 등), 제반 병리 검사, 수술실 시설 완비, 산실 완비, 인큐베이터(incubator, 보육기) 5대, 혈액원

금년에 혈액원이 신설되었다. 그간 이리에서 피를 사다가 썼는데 이제 그런 걱정은 없어졌다. 뿐만 아니라 전주 시내의 모든 병원이 이제는 성모병원의 혜택을 입고 있다. 예수병원에도 혈액원이 있기는 하지만 예수병원 자체만이 그 피를 쓸 수 있다. 적십자병원은 헌혈만을 취급하고 있다.

혈액원은 종합병원만 할 수 있는데 대개 귀찮아서(?) 안하고 있다 한다. 그러한 일을 성모병원에서 봉사하고 있다. 월 평균 500 CC들이 200명이 시내에 공급되고 있다. 혈액원이 생긴뒤로 어떤 환자는 무려 9명의 피를 수혈하고 생명을 건진 경우도 있다 한다.

3. 사회에의 봉사

다른 병원에 비해 30%~50%까지의 저렴한 의료수로 봉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무료진료 등의 봉사로 불우한 이웃을 돕는 성모(聖母-우리의 어머니) 병원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66년부터 작년 말까지 전환자에 대한 무료환자의 백분율이 약 39%라는 숫자가 이를 뒷받침한다.

4. 기 타

성모병원은 의료조합 지정병원이다. 그래서 의료조합원은 20%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병원안에 의료조합이 있다. 건강할 때 남을 돕고, 아팠을 때 혜택을 받는 의료조합 가입 희망자는 창구에 문의하기를 조합원인 본 기자는 적극 권장한다.

직원들이 <내 병원>처럼 서로 아끼고 돕는 성모병원은 바로 우리의 병원이다. (韓相甲記)

謹 賀 新 年

숲정이 편집실

□ 양지쪽 □



어제 - 오늘 - 내일

1977년 새 날이 밝았다.

어떤 이는 파랑새를 쫓아 허둥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에게 는 어떤 목표가 뚜렷이 정해져 있다.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야 할 목적이 분명하다. 가다가 지쳐서 그만 주저앉아 놀러 살고 싶은 유혹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배성들이다. 가다가 지쳐서 그만 주저앉아 놀러 살고 싶은 유혹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배성들이다. 가다가 지쳐서 그만 주저앉아 놀러 살고 싶은 유혹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배성들이다. 가다가 지쳐서 그만 주저앉아 놀러 살고 싶은 유혹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배성들이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행동으로 증거하며> 나아갈 뿐이다.

어제를 살펴보면 오늘을 더 잘 살기 위함이고, 내일을 바라다보면 오늘을 더욱 풍요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제 우리 교구의 어제 살펴보고자 한다. 비록 신문이나 통신들이 뽑아내는 10대 뉴스와는 거리가 먼 사건들일런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때로의 의미가 있고, 교회의 사명을 치뤘던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값진 것이다.

□ 사목교서 발표 「봉사하는 하느님 백성이 됩시다」 (1월 1일) 「믿음을 행동으로 증거합시다」 (10월 1일)

□ 사제 양성 후원회 창립 (1월 1일), 정의 평화 위원회 조직 (7월 7일).

□ 전국회의의..... 가톨릭 농민회 (1월 15~18일), 프란치스코 3회 (8월 20~22일)

□ 명동성당 3.1절 미사 사건에 관련되어 문정현 신부 구속됨 (3월 2일)

15회에 걸친 1심 공판기를 14회에 걸쳐 김정이에 실자나 무던히나 바꿨다. 2심 공판은 9회분을 모두 실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판에 참석 하시느라고 사제들의 노고가 컸다. 아마 길바닥에 깔고 서울에 뿌린 돈만도 상당할 것이다.

교형자매와 사제, 수녀들께서 풀풀이 내주신 문신부님을 위한 성금에 코져 감사할 따름이다. 그리고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에 가졌던 친구교 합동 월요기도회도 빼놓을 수가 없다.

□ 새 사제 13명 탄생 (5월 2일-3명, 12월 16일-10명)

□ 교황대사 루이지 도세나 대주교 교구 공식 방문 (5월 6~9일)

□ 사제 금경축 (김후상 신부-5월 29일), 은경축 (권영균 신부-12월 21일)

□ 혼인 문제 상담실 개설 (8월 10일, 담당-안복진 신부)

□ 3개 본당 신실 (12월 15일, 전북동·상관·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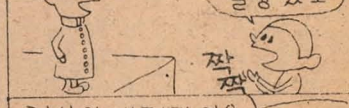
□ 연수회-김수환 추기경을 모신 해성. 성신 교직원 연수회, 두봉 주교를 모신 평협 주최의 사상 대강연회, 일본 상지대학의 니콜라스 신부를 모신 사제들의 해방신학 연수회, 본당을 찾아다니던 공동체 목상회 등 풍성하기만 했다. 이제 내일을 바라보며 하느님의 뜻을 펴가며 나아갈 뿐이다.

요심이 (179) 김병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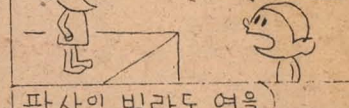
성극 '예수의 심판'을 끝마치고 출연자들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역을 한 신부입니다



검사인 대제관역을 한 분도입니다



판사인 빌라도 역을 하였습니다



*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

임금님 찾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② 5 0 1 3
김원준 (야교버)

* 여성 여러분에게
뭇을 선사합니다 *

세느 의상실

최 춘 자 (로사리아)
전주시 중앙동 전주극장 동편입구
전화 ⑥ 2 1 9

* 신자들의 건강 센터 *

성심당한약방

이 상 범 (필노리아노)
육교 밑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③ 4 5 4 4

각종 생파자 식빵 및 케익

미미제과소

전화 ② 6 5 8 9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은행 옆>
김민주 (가타리나)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미성당 시계점

장 금 태 (방지거)
전화 ③ 3 3 0 1 (자택 ⑧ 5 5 4 8)

건강 상담, 특수 처방

동양약국

문산시 문화동 880-5
<카디날 장갑 공장 앞>
약사 김예자 <마리아 막달레나>

□ 개원안내 □

★ 언제나 찾아 주세요 ★

수석(水石)치과의원

전주시 중앙동 3가 42~1
<박 소아과> 앞
원장 김 현 (아오스탕)
전화 ② 1 6 6 5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공
지
사
항

1. 혼인 문제 상담일(5일<수>)오전 10시-오후 4시, 교구청 응접실)
2. 성심·해성 졸업식(8일<토>):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 중고등 학생 연수회-공동체 목상회, 셀강습 겸(8일<토>)오후2시-10일<월>, 가톨릭 센터, 회비 2천원)
4. 신부 스피치 연구 모임(10일<월>)오후2시, 교구청)
5. 교구 실무자-부주교, 사목국장, 관리국장, 사목부국장, 평협사무국장-각 교구 견학(11일<화>-15일<토>)
6. 제4지구 교리교사 연합회 월례회(2일<일>)오후4시반, 전동성당)
7.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3일<월>)오후 7시반, 가톨릭 센터)

(중앙)

전화 ③3651
③3874

주임 신부 서용복
보좌 신부 김진석
사도 회장 이상용

금: 91,000원, 국군 장병 위문금: 14,50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준

1. 사도회 임원 선출·회장-이복석, 부회장-김병구, 엄경숙, 감사-엄익도, 김한영, 고문-김중순, 강재희, 김정기, 김철, 김철근, 천건, 오중원, 신광술, 이상범, 이기성, 김영애, 하정호, 조정래, 김은임 선교분과 위원장-김정생, 전례분과-장남수, 봉사분과-김성순, 재경분과-양학도
2. 사도회 월례회: 공식 미사 후(사제관)
3. 꾸리아 년총 친목회: 3일(월) 오전 11시 부터
4. 성심 부녀회 월례회: 첫 금요일 어머니 미사 후
5. 미사시간 변경: 토요일 어린이 미사(오후 4시)
6. 제대초 봉헌금: 문정남(엘리사벳)-5,000원,
7. 성탄 봉헌금: 225,969원

1. 축 새해 아침...발돋우는 한해를 만듭시다.
2. 환영! 새 형제자매 44명 탄생.
3. 신년 교례회: 10시 미사후 전신자 인사 나누기
4. 사도회 월례회: 공식 미사 후 ②사도임원, 반장님의 참석 바랍니다.
5. 반사회: 1월 4일-1반, 5일-2반, 6일-3반, 7일 4반.
6. 도장 공사 험금 및 76년도 교무금 미납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납 바랍니다.
7. 지난 주보 축일(25)행사에 어머니회, 청년회, 주일 학생회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총수입 66,300원, 총지출 66,270원 잔액 30원
8. 성탄 특별 헌금 62,000원
9. 청년회: 1월 8일 오후 7시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용홍
사도 회장 박종용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②각 단체 회장님과 단장님, 구역장님은 꼭 참석 바랍니다.
2. 예비자 교리시간 안내: 매주 금요일, 토요일 저녁 8시. (교리담당-권 신부님)
3. 각 반장님께 알림: 1월중 반사회 일정을 해당 구역장님과 상의하여 1월 9일 까지 본당 신부께 연락 바랍니다.
4. 설 시간: 1월 6일(목)오후 7시반
5. 환자 방문겸 봉성제: 1월 4일 오후 ②환자 있는 가정은 미리 연락 바랍니다
6. 성탄 봉헌금: 112,820원.
- 7★축 결혼 1월 4일 오전 10시
김일영(실릴로) 군, 강진자양.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기
보좌 신부 한기윤
사도 회장 김유석

1. 사도회(저녁 8시), 성화회(11시)유아세례(오후 2시)
2. 병자 고백 봉성제 연락 바랍니다.
3. 축일표 반회장택에서 배부 합니다.
4. 꾸르실료(남·녀)등록 바랍니다.
5. 극빈자는 반회장께 연락 바랍니다.
6. 설자설: 오늘 오후 2시.
7. 성탄봉헌금: 498,65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용환

(상관)

전화 77

주임 신부 이상호
사도 회장

1. 사도회 확대회의: 공식 미사 후
2. 신용 협동 조합 임원회: 1월 5일 오후 7시.
3. 신축 헌금 신입: 이봉춘(35,000원), 강기형, 이강식(각 20,000원), 김태봉(15,000원), 한두섭, 임인순(각 3,000원), 박관경(4,000원), 박종규(2,000원) 주계 102,000원 총계 5,527,500원.
4. 성탄 특별 헌금 86,450원.

1. 사도회: 11시 공식 미사 후
2. 학생 교리: 오후 2시반 ②부모님의 협조 바랍니다.
3. 예비자 교리: 11시 미사 후 (부활때 영세 예정) ②친절히 안내해 주는 교우가 됩시다.
4. 회장단 친목회 정기 총회: 1월 5일 오전 10시, 서당공소 최 회장택에서 있음(현직 회장 중 미 가입자는 전원 가입 바랍니다)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섭
사도 회장 조섭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전종근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 후 ※사도회 임원 및 반 회장님, 각 신심단체 간부님의 참석 바랍니다
2. 평화의 날 좌담회: 오늘 사도회 월례회
3. 축! 영세 15명.....축하합니다.
4. 복자 성우회 정기총회 지난 25일 뜻 있게 마칩: 회장-최용구(유임), 부회장-유기순(유임), 총무-이경호(유임), 재무-박상기(유임)※많은 발전을 빕니다. 수고가 많으시겠어요.
5. 성탄 특별 헌금 71,845원, 성탄 합동 가정미사 헌

1. 사도회 임원 소개: 회장-전종근, 부회장-김기권, 허옥순, 고문-이상용, 선교분과-강원모, 전례분과-강용채, 재경분과-엄익도, 봉사분과-김동선, 감사-김영진, 송재진, 금암동 회장-김동선
2. 미사시간 안내: 평일-오후 7시, 주일-10시, 오후 7시